<성명서>

총파업 찬반투표 반드시 압도적으로 가결시킵시다!

박근혜 퇴진 총파업! 금속노조 조합원 총회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대전충북 금속조합원 여러분!

지난 11월 12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분노한 100만의 민중들이 서울에 모여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이게, 나라냐!'*** 외침 한마디가 이 땅의 민중들의 분노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5%의 국정지지도가 말하듯이 박근혜정권의 정상적인 국정수행은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대통령은 퇴진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보수야당은 무기력함을 떠나 대권에만 눈이 멀어 분노하는 민중의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벌이 돈으로 정치권력을 사는 가짜 민주주의, 재벌의 대리 정치의 악습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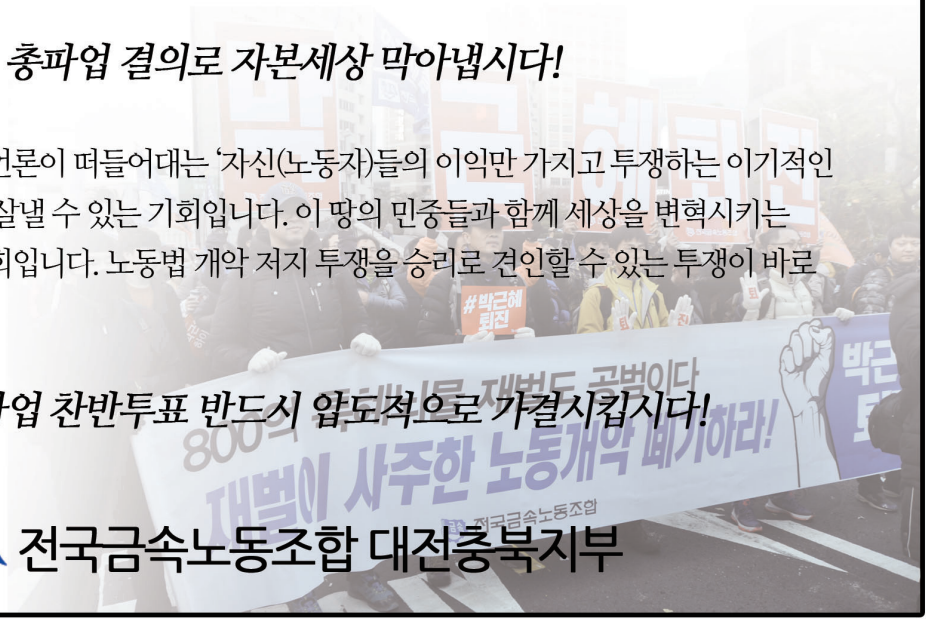
절호의 기회! 살려야 합니다!

노동자의 정치적 입김은 날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재벌/자본의 정치적 입김은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서 드러나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들과 독대를 하면서 돈을 거두었고 그때마다 노동법 개악, 민중들의 삶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생산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자본의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압도적인 박근혜 퇴진 총파업 결의로 자본세상 막아냅시다!

박근혜 퇴진 총파업은 보수언론이 떠들어대는 '자신(노동자)들의 이익만 가지고 투쟁하는 이기적인 조직'이라는 미친 소리를 박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땅의 민중들과 함께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체임을 확인시켜 주는 기회입니다.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을 승리로 견인할 수 있는 투쟁이 바로 박근혜 퇴진 총파업입니다.

이번 박근혜 퇴진 총파업 찬반투표 반드시 압도적으로 가결시킵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금속노조 총파업 방침

1.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지 않을 시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한다.

*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 *

2016년 11월 30일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정책 폐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11월 30일 총파업을 농민-빈민-학생 등 민중총파업으로 확대한다.
11월 30일 총파업 이후 파상-순회-무기한 전면 파업 등을 전개하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 등 총파업 방침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2. 금속노조 산하 각 지부 및 지회는 11월 23일(수)~24일(목)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고 압도적 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3. 청와대·여야정치권 야합으로 국민을 기만할 경우 총파업을 앞당길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포함한 이후 총파업 전술 등을 조합 중앙집행위원회로 위임한다.

4. 금속노조 산하 각 지부 및 지회는 퇴근 조합원 공동행진과 지역별 촛불대회 결합 등을 포함한 공동실천을 주1회 이상 전개한다.

■ 실천활동

매일 18:30 촛불집회 (대전 타임월드, 청주 성안길 입구)

11/23(수) ~ 24(목) 박근혜 퇴진 총파업 찬반투표 (각 지회별)

11/23(수) 18:30 대전지역 집중 촛불집회 (대전 타임월드)

11/24(목) 18:30 충북지역 집중 촛불집회 (청주 성안길 입구)

11/26(토) 5차 범국민행동 (서울)

11/30(수) 박근혜 퇴진 총파업







